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 아멘!

오늘은 정확하게 대강절 <마지막 네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는 성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성탄절이 25 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일의 네번째 초는 역시 보라색이고, <초의 이름>은 기쁨의 초입니다.  
(a candle of Joy)

성탄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기쁨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인 이유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는 <구원>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얻게 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괴로운 순간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의 경우”가 주어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첫째는,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을 소유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일천 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일천 억원 짜리 복권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경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도 “일천 억원” 짜리 복권을 한번 들여다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뭐, 장사 좀 안되면 어떻습니까? 일천 억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장사 잘 안돼도, 평생 호강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평 써도 오히려 돈이 더 늘어납니다.

교통경찰에게 “과속”으로 붙잡혀도 괜찮습니다. “벌금 때리려면, 때리라고 해” – 일천 억원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솟구칩니다. 경찰보고 웃으면서 교통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일을 할거면, 그만두라”고 소리를 쳐도 괜찮습니다. 나는 “일천 억원”이 있습니다. 웬 소리를 해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2) 둘째는, 소원하던 목표를 성취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일을 성취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어른들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여한이 없을 만한 것을 이루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계신 어른들이 자주하시던 말씀 중에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정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통일이 전 국민의 소원이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 가족들을 다 북한에 내버려두고 당신 홀로 남하(南下)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항상 북녘 땅만 생각하면, 북한에 두고 온 아픈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생각나서 항상 눈시울을 붉게 적시곤 했습니다. 전쟁이 곧 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으시고, 네 가족이 다 남쪽으로 내려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당일 날 아내가 심하게 아픈 바람에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내버려 두고 홀로 남하한 것입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다시 와서 당신과 애들을 데리러 오리다” 그런데 이 말이 장로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한의 3.8 선이 남과 북의 허리자락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후회를 가지고 반평생을 살아 오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통일만 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장로님은 통일만 되면, 항상 기쁨으로 사실 것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깐 동안으로 혹시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항상 주변 환경과 상황에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항상 기쁨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구세주 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 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에서 온 천문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 그들은 평생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전 <유대 선지자들>의 예언을 접하고, 머지않아 오시게 될 메시아를 연구하면서 준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을 통해 밤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던 “사산조 페르시아의 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은 우연히 유난히 빛나는 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별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오실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 메시아 아기에 드릴 “세 보물” 즉,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서,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빛을 쫓아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난히 빛나는 별> 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유대의 왕> 으로 오실 <메시아 아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소문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왕중의 왕 / 진정한 왕 / 하나님의 아들 /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 제일 많이 긴장한 사람들은 당시 유대의 왕 이면서도,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갖지 못해 불안해 하던 <헤롯왕>과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을 불러서 옛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 묻습니다.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 나겟느냐 불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회유해서, “만약 메시아를 찾게 되면,  
그냥 가지 말고 자기에게 와서 메시아가 어디에 계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리 메시아 왕을 제거해 버리려는 <간악한 속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헤롯과는 달리, 동방박사들은 오직 한 목표 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이신 아기 메시아를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계속  
별만보고 움직였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별이 어느 한 집,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멈춰 서게 됩니다.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머물러 서게 되었을 때, 동방 박사들의 감정은 딱 하나  
였습니다. ➡ 그것은 <JOY>(기쁨)이었습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흥분이었습니다.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이었습니다. 평생을 추구해왔던 기쁨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단어 속에 동방 박사들의 모든 <관심>과 그들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당시 최고의 보물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최선의 선물을 메시아께 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금전적인 가치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그것들을 준비한 이유는 메시아가 그들의 인생의 최고 가치라는 것을 말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들의 기쁨과 감동을 표현해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아기 메시아는 <기쁨> 이라기 보다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메시아 아기가 태어난 장소는 (1) 마구간입니다. 더러운 동물들과 냄새는 목자들에게 어울리는 곳입니다.

(2) 아기가 누워있던 곳은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구유입니다. 메시아와는 어울리지 않는 잠자리입니다.

(3) 메시아 아기의 부모는 <베들레헴의 촌부들>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젊은 목수였고,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너무도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할 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마리아는 “미혼녀 임신부”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입니다. 그 아기를 만나려고 그토록 죽을 고생하면서 <먼 길>을 왔는데, 동방박사들의 눈에 비친 메시아의 모습은 얼마나 허무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과연 그 아기의 모습이 정말 동방박사들이 평생을 기대하고, 예상했던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기를 보고 동방박사들은 모두 기뻐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자신들의 선입견이나 예측, 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나 환경 그리고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의 기쁨은 딱 하나! 그 아기의 존재가 바로 “자기와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구세주)라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의 기쁨은 언제나 “자신이 기대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자기의 생각이나 기대를 저버리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갖는 기쁨과 만족의 <한계>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동방박사와 같이 오직 <구세주 이신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만 가능한 기쁨입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보다도 조계종 같은 사찰이나 원불교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 더 열정적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 줍니다. 큰 사찰에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현수막을 걸고,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기뻐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들의 <넓은 마음>과 <포용의 정신>을 존경합니다. 저희 같은 편협한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그렇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타종교의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오직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쁨”은 아기 예수님 만이 구원이시고, 그 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강림하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힘든 성육신(Incarnation)의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Cf. 

닥터 수스(Dr. Suess)라는 미국의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동화책 중에 “어떻게 그린취가 크리스마스를 훔쳤나?”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외롭게 사는 초록색의 “그린취”라는 심술쟁이 괴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린치”는 높은 산에서 후빌(Whoville)이라는 마을을 내려다 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후빌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매우 사랑했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린치”는 마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때에 사람들이 내는 요란한 소음이 싫었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싫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싫었고,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후빌 마을의 사람들에게서 크리스마스를 폼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린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선물과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모두 훔쳐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잃어 버렸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기뻐했습니다.

그린치는 기쁨에 넘쳐 성탄의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생각에 빠집니다.

“어쩌면,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주어진 <기쁨>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거창한 선물을 주고, 멋진 장식을 준비해도 성탄절을 성탄절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주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면 결국 성탄의 의미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장크기가 다른 사람들의 반의 반 밖에 안되는 그린치는 크리스마스는 물질이나 어떤 환경 조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린치를 욕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그 동안 외롭게 지냈던 그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던 우리 소명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구원과 그리고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1. 대강절에는 모두 다섯개의 초를 점화하는데 다섯 초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 1) 첫째 주 (보라색) – 희망 (Hope)
- 2) 둘째 주 (보라색) – 회개(준비) (Repentance / Preparation)
- 3) 셋째 주 (분홍색) – 사랑 (Love)
- 4) 넷째 주 (보라색) – 기쁨 (Joy)
- 5) 크리스마스 날 (하얀색) – 그리스도(Christ/Messiah)

2.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 )이 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3.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 1) 마태복음 1: 21 (                      ), 2) 마태복음 1: 23 (                      )

4. 대강절 네번째 주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영적인 훈련은 무엇입니까?

5. 우리가 성탄의 기쁨(Joy of Christmas)을 나누어야 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볼까요?